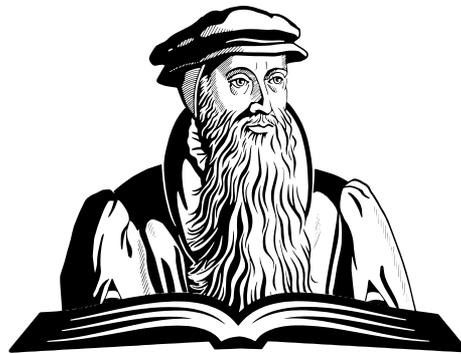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4: 노아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4

노아

강의 주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하나님이 …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2:4,5,9).

강의 스크립트 4

노아의 방주와 전 지구적인 홍수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례없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노아의 시대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잘못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홍수 때에 세상에는 영구한 변화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계획의 본질을 더 많이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5장이 신학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요? 노아 시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은 서로 반대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심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진행시키고 또 성경역사에 있어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도록 합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특히 홍수 이전과 홍수가 일어나는 동안 그리고 홍수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노라는 주제를 서로 엮이면서 구원이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홍수 이전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창세기3:15에 언급된 두 후손의 후손들 사이를 분리하고 구분하셨습니다. 첫번째 구분으로서 창세기4장에 나오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아의 시대로 이어지는 두 혈통이 있었습니다. 이 첫번째 요점에 관련하여 이 두 혈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건한 자손의 혈통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창세기 3:15을 통해서 중보자께서는 경건한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4장은 창세기3:15의 약속에 따라 처음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두 후손 사이의 투쟁의 시발점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첫번째 위선적인 배교자가

되고 아벨은 첫번째 믿음의 순교자가 됩니다.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 4:4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을 가지고 그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11:4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10:17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비록 창세기4장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생제사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사는 앞으로 오게 될 것들의 기초가 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제도로 확장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아벨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허무함”으로서 이는 전도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후 경건한 후손의 계통은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4:25)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성경에 따르면 “그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 불렀습니다(창4:26)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변의 환경과는 반대로 이제 교회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만약 좀 더 읽으면 에녹이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사슬에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창세기5:22과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22절)고 말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24절)

걷는다는 말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매일매일 가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6:7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은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에 의도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11:5은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증언은 창세기6:9에도 이어집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 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17:1)

이것 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서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2: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의의 설교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후손인 신자들은 예언과 희생제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예배의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둘째로 첫번째 요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불경건한 후손의 계통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배웁니다. 뱀의 후손이 가인의 계통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요한일서3:12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에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피의 제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권징의 첫번째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의 모임에서 가인이 쫓겨난 것입니다. 창세기4:16에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이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이신 모형으로서 미래에 있을 교회의 모든 개혁들의 한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첫번째 살인은 라멕에 의한 더 많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창세기4장에서 그 살인에 대해서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6장의 처음 구절들은 교회와 세상이 서로 섞인 것에서 비롯되는 부패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셋의 어떤 후손들은 인간의 딸인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존 오웬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악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교회의 몰락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6:3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축복

도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자 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수문이 열리자 심판의 수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분리의 원리가 훼손되었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불경건한 동맹이 이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세기6:5에 나오는 노아의 날이 닳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최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구절에 기록된 죄의 특징에 대한 여섯 가지 사실들을 눈여겨 보세요. 먼저 죄는 타고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 사실을 창세기8:21에서도 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6:5에는 인간의 악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죄의 강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죄의 전체성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넷째로 죄가 가진 왜곡된 창조성입니다. “계획”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일에 있어서 창조적이라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죄가 내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죄는 배타적입니다. 죄는 유일한 악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곱째로 죄는 습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죄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로마서3:9,23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인 사람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아주 부풀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자고하여졌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를 들로 보내어 황소처럼 살도록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전12장에 나오는 헤롯이 있습니다. 그는 신으로 칭송을 받았고 그런 칭찬을 받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 결과 벌레가 헤롯을 먹어버렸고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세기6:5은 전적타락 교리에 대한 증언으로서 가장 초기에 나오지만 가장 분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이라는 말은 인간본성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는 광범위한 것이지 반드시 집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이 영향을 받았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이해가 죄에 영향을 받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긴 목록을 신약성경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양심과 의지 등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도덕적으로 무능한 이유는 그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장님이며 무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그저 아프거나 눈이 흐려졌거나 약하거나 지식이 어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불신자는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 묶여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원하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속사에 걸쳐서 드러나는 의지의 자유에 대한 교리를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과정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그림을 배경으로 창세기6장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속사를 네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장에서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고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덴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무죄했던 상태의 아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있었습니다.

두번째 범주는 타락 이후입니다. 이 상태는 최악된 타락의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직 악을 행할 능력만을 가질 뿐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셋째로 죄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선과 악을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범주는 신자들이 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천국에서 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할 능력만 있지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6:5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불신자들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악한 것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편으로는 죄의 죄악됨과 다른 한 편으로 죄의 극악함을 아주 간략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특별히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유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범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음,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야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거든”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죄악됨과 죄의 극악함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악된 일이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 형제를 죽이는 것도 죄악된 일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죽이는 일은 보다 극악한 것입니다. 보다 악한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극악함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는데서 분노에 찬 말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죽게 되도록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죄의 극악함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죄가 죄악되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높게 바라보는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합니다. 그 결과 구원의 필요성은 인간을 겸손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인도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서, 죄에게서 그리고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홍수가 일어나던 기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6:11-13에서 보듯 전 지구적인 배교는 전무후무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옛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운 구원이 오직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주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폭풍과 더불어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는 한 시대의 마지막을 알린 것입니다. 그 때까지 알려져 있던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두가지 사실에 주목하세요. 첫째는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에녹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24장과 누가복음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잠언29:1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몇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는 지구 전체를 덮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일으키신 보편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3:3-7에서 베드로가 이를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노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보편적인 홍수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병행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홍수는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상징이라는 말이죠. 바로 죄의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3-7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점과 관련하여 홍수가 일어나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이 창세기6:17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보다 조금 앞에 있는 5:29에서 노아의 출생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6:8에 노아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는 노아도 역시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갈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구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또한 창세기8장은 “하나님이 노아를...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이 심판의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저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베드로전3:20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 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명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세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성화를 연결시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그리스도를 덮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정결하게 했던 이 물은 방주 안에 있던 이들을 구원했습니다. 악한 세상은 노아를 집어 삼키고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홍수는 세상을 파괴했고 동시에 동일한 물이 교회를 구했으며 교회를 악한 세상과 분리시켰습니다. 이사야1:27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주로 부르신 후에 방주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곧 자신의 백성들의 피난처요 구원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뱀의 후손이 멸망당할 동안 여인의 후손은 안전하게 띄워져 구원받는 모습을 봅니다.

셋째 우리는 홍수 이후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신의 복음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9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선언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과 가장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22:21에 이르기까지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창세기9:9에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세우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노아언약에서 여러분은 창조와 구속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창조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두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창조시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은 구속이 진행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역사 속에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약적 축복들이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이미 존재하는 창조의 갱신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9장에는 생명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 나타납니다. 이런 새로운 언약의 약속들은 여러 제사와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 초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조물들이 둘씩 방주로 들어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동물들은 일곱씩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희생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고 (이 정결한 짐승들은 제사에 제물로 드려져야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먹을 양식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8:20에서 제단에 대하여 최초의 언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다시 한번 희생제사와 피흘림과 함께 세워지게 되는데 이는 성경의 시작부터 이미 우리가 마음 속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훨씬 나중에 주의 만찬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언약에 대한 영구한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13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16절과 1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는 또 다른 하나의 구성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언약의 표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관하여 우리는 가정의 원리(household principle)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약의 약속은 신자의 가족들에게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분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11:7)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신자인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로 확장하시는 것에 주목하세요. 창세기9:9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의 원리는 앞으로

보겠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2:39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할 때 그도 이와 매우 비슷한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하신 것이라”

하지만 언약의 가족 안에서 언약의 약속들을 물려받는다는 말은 모든 가족이 참된 회심과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함의 반역과 언약파괴를 통해서 다시 여인의 후손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9:25-27에 이 사실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홍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이후에 세상은 다시 노아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전과 연속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9장에서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창조규례의 연속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보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9:6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인간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구원이라는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창세기9장의 마지막에 있는 어떤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속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대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9:26,27에는 “또 이르되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기서 우리는 썸이 장막을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봉사함으로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벳의 자손들은 그 장막을 심히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구속사에 있는 하나님의 장기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썸의 자손인 유대인을 사용하여 그의 언약과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언약과 교회로 들어갈 것이며 훗날 이를 심히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약속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에서 훌륭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는 궁극적으로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나아갈 길과 구속의 역사는 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